

“부처님 오신 뜻, 광명의 ‘燈’으로”

5월 9일~10일 봉축, 부산시민연등축제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상징하는 광명등이 불교수도 부산을 수놓는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회장 정여)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문현금융단지에서 ‘부산시민연등축제’를 봉행한다. 지금까지 봉행해온 봉축 행사와는 달리 기간과 행사 방법,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할 수 있는 부대행사 등 변화를 모색해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민연등축제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불자들 뿐 아니라 부산 각 지역의 시민들과 나누고 참여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시민 축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시작했다.

9일 전야제에서는 34종 100여 마리의 동물을 준비한 신나는 이동 동물원과 전통 연날리기 및 만들기, 청소년 문예 대전 등이 지

역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된다. 또한 각 사찰의 합창단들이 참여해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지휘를 새롭게 맡은 정성민 교수는 “봉축 행사를 위해 모든 곡을 새롭게 준비하고 연습에 돌입했다”며 “각 사찰에서 활동하는 합창단들이 참가해 장엄하고 아름다운 찬불가가 울려 퍼질 것이다”고 말했다.

10일에는 오후 2시 식전 축하 공연 및 108배 정진기도를 봉행한다.

봉축연대법회는 오후 5시에 봉행하며 법회 후 제등행진은 문현금융단지를 출발해 불교신협 앞, 범내골 토터리, 서면 토터리, 서면 밀리오레 앞, 전포로, 문현금융단지 순으로 순환코스거리는 약 4km이다. 봉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순환 코스는 부산 진시장, 평화시장 등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 요지이다”며 “제등행렬 시 관람객을 극대화



부산 불자들은 매년 보다 새롭게 봉축행사를 준비한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 봉축행사 모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예상하며 지난 봉축행사와는 달리 제등 행렬 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연등축제 회향 공연 ‘다함께 하나 되어’를 오후 9시 개최해 회향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봉축위원회는 ‘송례문 등’을 가로 7m, 세로 4.5m로 제

작해 대표 등으로 삼는다. 봉축위원회 관계자는 “송례문 등을 보며 슬픔을 잊지 말고 재도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봉축점등식은 4월 29일 오후 6시 부산역 광장에서 봉행한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 날짜 | 행사 |
|--------|--|
| 4월 29일 | 봉축점등식 |
| 5월 9일 | 전야제, 이동동물원, 청소년문예대전, 전통연날리기, 부산불교합창제 |
| 5월 10일 | 식전축하공연, 108배 정진기도, 봉축연대법회, 제등행진, 시민연등축제회향 공연 ‘다함께 하나 되어’ |

부산·경남 인재 불사 행진



해동원효장학재단에서 4월 7일 해동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 경남 일대에서 인재불사 소식이 연달아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남기고 있다.

4월 6일 동울산사암연합회(회장 동파) ‘반야장학회’는 울산 동측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 반야장학회는 사암연합회를 구성한 후 회원스님들이 고심끝에 발족한 장학재단으로 창립 이후 11년 동안 끊임없이 활동해왔다. 현재 반야장학회는 각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운

을 겪는 학생 12명을 선발해 매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장학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야장학회만이 아니다. 인재불사를 강조하며 부산에서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새바람이 불었다.

부산 초음 불광사(주지 보광)는 4월 6일 ‘장학금기금 마련 나눔 장터’를 마련하고 지역민들을 초대했다. 바자회는 불광사 신도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참가자들과 특히 서울

에서 찾아가는 중국차 전문 판매점 연화정도 방문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무료 헤어컷, 어린이 사물놀이, 먹거리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로 휴일 가족과 함께 방문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었다. 주지 보광 스님은 “올해를 기점으로 매해 장학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고 인재불사에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자회를 통해 모은 장학금은 부산 초연중학교에 전달했다.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15명의 도반스님들이 모여 해동고등학교 후원 장학재단 ‘해동원효장학재단’을 설립하고 4월 7일 해동고등학교 제71회 개교기념일을 맞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울산 상불사 주지 석연 스님을 비롯한 회원 15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해동고등학교 학생 15명을 선발해 일대일 결연관계를 맺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유발상좌와 같은 개념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하성미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거제 마하병원

“재활 치료 넘어 마음치료까지”

사단복지법인 내원(대표이사 정련)에서 운영하는 거제 마하병원은 푸른 숲 그대로 자연과 함께 어울려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재활전문병원이다. 작년 3월 의료진이 취약했던 거제에 농어촌 사람들을 위한 전문 재활병원이 들어섰다. 거제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1여년을 활동한 마하병원이 이젠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마음치료에도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이 같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환우를 위한 음악회와 봄 소풍.

마하병원은 개원 1년 및 봉축을 맞아 ‘집중식’과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 및 노래자랑’을 4월 17일

있습니다. 배려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자비의 마음이 우리 활동의 근 본입니다. 이번 음악회와 봄 소풍은 자비 실천을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오정림 실장은 마하병원을 설립한 이유도 존재 이유도 단호히 자비라 말한다. 자비 실천을 위한 또 하나의 시작, 환우들을 위한 봄 축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자비는 실천입니다. 마하병원의 환우들이 더욱 건강하고 밝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되어 퇴



원을 하는 것을 넘어 서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거제 마하병원 개원 1주년 맞아 도약 환우들이 건강하고 밝게 사는 것이 바람

에 오후 7시에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거제에서 일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자원봉사단 밴드부가 나서 음악회를 열어 더욱 의미가 깊다. 종교를 초월해 병마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지친 환우들을 함께 위로하고 치료하고자 마음을 모은 것이다.

또한 5월에는 매물도 학동 해수욕장에 환우들과 함께 봄 소풍을 갈 예정이다. 지친 환우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희망을 만들고 의욕이 더욱 넘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환자 모두 어울려 2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마하병원 오정림 실장은 “개원하고 일 년 동안 중풍과 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지켜보

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두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하병원은 작년 3월 10일 개원한 교계 최초 재활전문병원으로 뇌졸중을 비롯한 머리 및 척추 손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 산업재해근로자, 만성 노인 질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최첨단 의료장비와 다기능 치료실, 운동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열전기 치료 등 다양한 치료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골밀도측정기, 6way X선 촬영기, CPS집중치료실 등을 보유해 첨단 치료시설을 자랑한다. 또한 치료실이 채광과 조망 효과를 가장 잘 살려 생명력 넘치는 병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법상종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 대법회



모시는 글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사를 원만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공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자비로운 5월에 원만 회향을 축하하는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다감 하시더라도 무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천문사 주지 진성 합장

법회안내

- 일시 : 불기 2552(2008)년 5월 3일(음,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천문사 극락보전 (서울 노원구 상계 1동 1000-7번지)
- 문의 : (02)936-9736 / 011-307-3130



대한불교법상종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